

Grounded horizons: Of Identity and Belonging Beyond Borders

Featuring Artists: Woogi Hong, Inkyung Hwang, Hyeon Deok Jo, Gyung Hee Joh, Hanna Jung, Eemyun Kang, Guino Kim, Hajin Kim, Hwal Kyung Kim, Jisang Kim, Young Hoon Kim, Geun Muk Lee, Sangmi Moon, Seungwan Park, Nanyoung Shim, Hyun Sook Son

Grounded Horizons: Of Identity and Belonging Beyond Borders brings together contemporary works by Korean artists currently residing in Italy (Artisti Coreani in Italia), whose practices are shaped by experiences of migration, transnational life, and sustained engagement with multiple cultural and social frameworks. Positioned between “here” and “beyond,” the exhibition explores identity and belonging not as fixed or predetermined states, but as dynamic conditions continually shaped through encounter, negotiation, and cross-border experience.

Rather than framing migration solely as displacement or loss, the exhibition understands it as a generative condition—one that produces new ways of seeing, reflecting, and creating. The concept of “grounded horizons” evokes a productive tension between stability and openness: to be grounded does not imply being rooted in a single place, just as a horizon is never a final limit but always extends outward. In this light, identity emerges as a living process, formed and transformed through personal experience, historical memory, social structures and material conditions.

Across diverse media and artistic approaches, the works in this exhibition share a sensitivity to transformation and the traces of time. Surfaces, forms, and compositions often bear evidence of prior gestures, states, or layers, suggesting that meaning is carried forward and reconfigured rather than replaced. Memory here is not a static recollection, but as an active force embedded in visual and material structures. Through repetition, layering, and subtle modulation, the artists reveal how past and present coexist within the act of making.

Relationality—between places, cultures, bodies, and systems of reference—emerges as a central concern. Navigating national, linguistic, and cultural contexts, these artists continually engage in processes of translation, adaptation, and reorientation. Their works resist singular or essentialist narratives of identity, instead embracing multiplicity, contingency, and flux as fundamental aspects of diasporic experience. In this framework, belonging is provisional and continuously reshaped through interaction, exchange, and lived experience.

At the same time, *Grounded Horizons* emphasizes agency and possibility alongside uncertainty. Migration may involve challenges and adaptation to unfamiliar structures, but it also opens space for critical reflection, creative transformation, and new forms of understanding. The artists demonstrate how encounters with difference can expand self-awareness and artistic practice. Identity, rather than being diminished by relocation, is reconstituted through it—able to hold multiple affiliations without erasing their inherent tensions.

This exhibition invites viewers to think of identity and belonging as fluid, continuously shaped by time, memory, and relational experience. By emphasizing processes over fixed outcomes, *Grounded Horizons* presents diaspora as a lived, evolving phenomenon—one that unfolds through both continuity and change.

여기서, 그리고 그 너머

작가명단: 강임윤, 김영훈, 김준호, 김지상, 김하진, 김활경, 문상미, 박승완, 심난영, 손현숙, 이금목, 정한나, 조경희, 조현덕, 홍우기, 황인경

여기서, 그리고 그 너머는 현재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한국 작가들의 현대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로, 재이탈리아 한국미술가 협회(ARCOI)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업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들의 작품은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며 겪는 이주 경험과 서로 다른 문화·사회적 환경 속에서의 만남과 교류 속에서 형성되었다. 전시는 '여기'와 '저 너머' 사이에 놓인 삶의 자리에서, 정체성과 소속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와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번 전시는 이주(immigration)를 상실로만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시선과 사고,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경험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그리고 그 너머'는 한곳에 완전히 머무르거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감각하는 태도에 가깝다. 땅을 딛는다는 것이 반드시 한 장소에 뿌리내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듯, 지평선 또한 끝이 정해진 선이 아니라 계속 확장되는 방향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전시는 정체성이 삶의 경험 속에서 점차 쌓이고 변화하며, 기억과 환경, 주변 조건에 따라 달리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시에 소개된 작품들은 재료와 형식은 다양하지만, 변화와 시간의 흔적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공유한다. 작품의 표면과 형상에는 이전의 움직임과 사용의 흔적, 지나간 시간의 자취가 남아 있으며, 의미가 단절되거나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겹치고 이어지며 변주된다는 느낌을 전한다. 여기서 기억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작품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한다. 반복과 겹침, 미세한 변화들을 통해 작가들은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장소와 문화, 언어의 관계 역시 전시의 중요한 주제이다. 서로 다른 나라와 언어 환경을 오가며 살아가는 작가들은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동화되며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들의 작업은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을 말하기보다, 여러 정체성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전시에서 소속감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장소와 장소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전시는 또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과 선택의 여지를 강조한다.

이주(immigration)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다른 방향을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참여 작가들은 서로 다른 경험과 차이가 어떻게 새로운 이해와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체성은 변화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을 거치며 재구성되고 확장된다.

이 전시는 관람객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단일한 정답으로 정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시간과 기억,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사유하도록 안내하며, 결과보다 과정을, 고정보다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여기서, 그리고 그 너머는** 디아스포라를 지금도 진행 중인 살아 있는 경험으로 보여준다.